

# 400년 지켜온 ‘보성 영광정씨 고택’ 국가유산 됐다

국가유산청, 국가민속문화유산 공식지정  
‘영구하해’ 명당·조선·근대 생활사 간직  
독특한 건축미·원림 등 보존 가치 ‘탁월’

보성군이 품고 있는 400년 역사의 삶의 터전인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승격됐다.

23일 보성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18일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는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역사와 민속문화를 온전히 간직해 온 점이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다.

이 고택은 영광정씨 정순일(1609~?) 선생이 봉강리에 터를 잡은 이후 400여년간 대를 이어

지켜온 유서 깊은 공간으로,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일제강점기 할일운동과 근대 민족운동, 해방 이후의 격변하는 사회적 사건들이 켜켜이 쌓인 ‘살아있는 역사 현장’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곳은 한국 풍수지리 전통에서 길자로 꿈하는 ‘영구하해(靈龜下海·신령스러운 거북이 바다로 내려가는 형국)’의 거북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

현손인 정도삼이 자신의 호를 ‘구정(龜亭)’이라 짓고 고택을 ‘거북정’이라 칭한 것은 가문의 정체성과 자연 경관을 일치시키려 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건축학적 가치 또한 남다르다. 안채와 사랑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배치된 ‘이(二)자형’ 구조는 호남 민가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요(凹)자형’으로 구성된 안채는 보성 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성 봉강리 영광정씨 고택 전경 모습. 〈보성군 제공〉

역만의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뒷면에 사적 공간 방식과 사회적 맥락을 잘 담아내고 있다. 고택 주변에는 역사적 의미를 더하는 부속 건

물들도 잘 보존돼 있다. 서측 계곡 건너편에는 일제강점기 한학 교육과 손님맞이, 제설 기능을 담당했던 ‘삼의당(三宜堂)’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면에는 1880년 조정의 명으로 세워진 ‘광주이 씨효열문(廣州李氏孝烈門)’이 있어 문중의 효열정신을 증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득량만을 바라보는 시원한 전망(통경축)과 사랑채 안마당의 정원은 근대기의 변화를 수용한 전통 조경 기법을 보여주며, 건축과 자연이 어우러진 빼어난 문화경관을 자랑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영광정씨 고택은 건축·풍수·민속·근대사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국가지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보존·관리는 물론, 많은 사람이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역사 문화 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철 기자〉

## 장성군 올해 최고 시책은?...어르신 택시 바우처 ‘엄지척’

郡, ‘성장장성 우수정책’ 10건 발표

年14만4천원 지급…교통복지 실현

‘24시 돌봄 어린이집 운영’ 등 포함

장성군이 올 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성장장성 우수정책’ 10건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23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우수정책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36개 사업 중 부서장 설문을 통해 15건을 선별한 뒤, 군민과 공직자 1천800여명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정책으로는 민선 8기 체감형 복지 사업인 ‘어르신 택시 바우처’가 꼽혔다.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14만4천원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이 사업은 병원 이동 등이 잦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24시 돌봄 어린이집 운영’도 우수 정책에 이름을 올렸다.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당 1천원의 저렴한 비용에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의 큰 지지 를 얻었다.

대규모 행사 성과도 두드러졌다. 장성군 최초



김한중 장성군수는 최근 우수정책 중 하나인 택시 바우처 사업 현장을 방문해 택시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로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을 유치해 3만여 명의 방문객을 불러 모았으며, 전남체전 종합 4위 등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 밖에도 ▲장성군 캐릭터 ‘성장이와 장성 이’ 개발 ▲황룡산립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선정 ▲건동광산 부지 데이터센터 조성 협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 ▲인공지능(AI) 비서 도입 ▲장성나노기술 제2일반단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로컬푸드 농가 레스토랑 ‘장성한상’ 운영 등이 10대 우수정책에 포함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과 공직자가 직접 뽑은 이번 우수정책들은 지역 변화에 대한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구성원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문태 기자〉

## 정광현 순천시의원 “동일 전세사기 수사 나서야”

제291회 제2차 정례회서 촉구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향·매곡·삼산·저전·중앙·사진)이 최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담양군, 2026년 주요업무 보고회 추진

담양군은 23일 “전남 군청 송강정실에서 정철원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경마공원 유치 ▲국제 명상센터 건립 ▲사계절 꽃파는 거리 조성 ▲향촌복지 서비스 확대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정 군수는 지난 7월 호우 피해 지역인 가사천·어사천의 개선 복구와 담양읍·고서면 일원의 침수 예방 사업 등 군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 했다.

정 군수는 “내년은 군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모든 공직자가 ‘원팀’이 돼 ‘더 큰 담양’을 완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고흥군, 전남도 농정평가 4년 연속 ‘우수’

식량·원예 ‘대상’ 등 3관왕 쾌거

3년 연속 수출 1억달러 달성 호평

고흥군이 전남도가 주관한 ‘2025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농업 강군’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군은 농정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종합 평가 우수상을 비롯해 총 3개 부문에서 표창을 휩쓰는 쾌거를 거뒀다. 〈사진〉

전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는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식량·원예 ▲농수산식품 수출 등 농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 성과와 실현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제도다.

고흥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선제적 인력 수급 정책과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농업 구조 개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세부 부문별 성과가 두드러졌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등의 공로로 ‘식량·원예 업무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으며, ‘농수산식품 수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고흥군은 전국 군 단위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3년 연속 수출 1억달러 달성이

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통해 선도 농업 도시로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행정이 책임진다’는 민선 8기 농정 철학 아래 국내외 인정적인 판로 확보에 주력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4년 연속 수상은 농업 인과 행정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미래 농업 육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혁 기자〉



〈화순=이병철 기자〉

화순군 ‘청년하우스’에 12명 입주

공개 추첨 경쟁률 최고 2,5대 1 기록

화순군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돋기 위한 ‘청년하우스’의 새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23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청년하우스 1층에서 ‘2026년 입주자 공개 추첨식’을 갖고 최종 입주자 12명을 선정했다.

이번 모집에는 35명이 지원했으며 서류 심사를 통과한 28명을 대상으로 추첨이 진행됐다. 경쟁률은 남성 25대 1, 여성 2대 1을 기록해 청년 주거 시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연령대별 신청자는 10~20대가 64%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30대는 36%로 집계됐다. 추첨 결과 최종 입주자는 남성 6명, 여성 6명이며 거주지 별로는 관내 8명, 관외 4명이다.

선정된 입주자는 24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내년 1월 종준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며 입주 후에는 15일 이내에 반드시 화순군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청년하우스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취·창업의 꿈을 펼치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자립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